



■ K-리그 8개월 대장정 막 내리 (상)

2007년 프로축구가 '파리아스 마법'의 힘을 얻은 포항 스틸러스의 우승으로 8개월여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지난 3월3일 성남-전남의 개막전으로 광파르를 울린 올해 K-리그 그라운드에는 어느 해보다도 변화가 많았던 한 해로 기록될 만 하다. 올 시즌 프로축구를 상, 하로 나눠 결산한다.

리그 5위 포항 챔프 '대반란' 잇단 그라운드 추태 아쉬움

특점 랭킹 10위내 용병 8명

▲초반은 서울, 막판은 포항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유럽축구 변방 터키를 4강에 올려놓은 명장 세를 구내슈 감독을 데려온 서울은 초반 컵 대회를 포함해 7경기 무패 행진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난 4월8일 상암발에선 프로축구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사건도 있었다.

서울과 수원원의 라이벌전에 무려 5만5천397명이 입장, 프로스포츠 역대 최대 관중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지만 서울의 돌풍은 '찾잔속 대풍'으로 끝났다. 박주영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에 신음하면서 귀네슈호의 고공행진은 소리없이 사그라졌다.

이후엔 리그 7회 우승에 빛나는 '레알 성남'의 독주가 시작됐다.

국내와 사령탑 중 컴퓨터 분석용으로 이름 난 김학범 성남 감독은 국가대표급 라인업을 소수 정예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투입해 4월1일부터 선두 자리를 꿰차고 8월26일까지 6달 넘게 난공불락의 성을 구축했다.

성남은 그러나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서서히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호시탐탐 선두를 노리던 수원이 8월 패자의 6연승을 달리며 성남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반면 우승팀 포항은 초반 날개없이 추락했다.

본엔 12경기 연속 무패(5무7패)로 팀 최다 무승 타이 기록에 허덕일 정도였다. 하지만 포항은 6강 플레이오프부터 기적을 만들어냈고, 15년 만에 통산 네 번째 우승 별을 가슴에 새겼다.

▲토종 골잡이 올해도 잠잠 올 시즌 프로축구는 특점 순위 10위 이내에 8명이 용병이었고, 토종 스트라이커는 단 2명뿐이었다.

1위는 경남 FC의 브라질 출신 특급 용병 까보레. 그는 26경기에서 나와 18골을 넣어달며 경기당 0.69골을 기록하는 득점력을 과시했다.

이어 2~7위를 데닐손(14골·대전), 대안(14골·인천), 스테보(13골·전북), 루이지뉴(11골·대구), 모따(9골·성남), 슈바(8골·대전)가 차지해 특점 랭킹 상위권은 그야말로 '용병천하'를 이뤘다.

8~9위에 이근호(8골·대구)와 우성용(8골·울산)이 겨우 이름을 올렸다

▲그라운드 추태는 쓸쓸 한가위 연휴 첫 날 수도권 빅매치로 펼쳐진 인천-수원전에서 인천 임종용과 수원 용병 에두가 서로 침을 뱉고 이 장면이 전광판에 반복 상영되면서 관중이 흥분해 이물질을 투척하는 등 그라운드는 난장판으로 변했다.

FA컵에서도 인천 방승환이 퇴장에 항의해 옷통을 벗어던지고 추태를 부려 1년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빙속 월드컵 男 1,000m 2차 레이스 '銅'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말형' 이규혁(29·서울시청·사진)이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에서 이틀 연속 한국 신기록 행진을 벌였다.

이규혁은 12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오벌에서 치러진 남자 1,000m 디비전A(1부리그) 2차 레이스에서 1분07초07을 기록, 앞서 경기를 마친 문준(25·성남시청)이 작성한 한국 신기록(1분07초

11)을 0.04초 앞당겨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이규혁은 전날 1,000m 1차 레이스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 이틀 연속 한국 기록을 갈아치우는 폭설을 발휘하면서 '노장의 힘'을 과시했다.

여자부에서도 한국 신기록이 두 개나 작성됐다. '단거리 유망주' 김유림(17·의정부부여고)은 여자 1,000m 디비전A 2차 레이스에 나서 1분16초34로 결승선을 통과해 14위를 차지, 이상화(19·한국체대)가 3월에 작성한 한국 기록(1분16초63)을 0.29초 당겼다.

또 여자 3,000m 디비전A에 나선 이주연(20·한국체대)도 4분07초13을 기록,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 기록(4분08초41)을 무려 1초28이나 앞당기는 신기록으로 6위에 올랐다.



한국야구 두 '거성' 뭉 애기 나눌까?

12일 일본 오키나와 온나손 아카마구장에서 열린 한국야구대표팀 전지훈련 첫날, 박찬호(오른쪽)가 몸을 풀며 선동열 수석코치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희뉴스

장원삼·민병헌 야구대표팀 후보 합류

박재홍은 중도 하차

좌완 투수 장원삼(24·현대)과 외야수 민병헌(20·두산)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노리는 야구 대표팀에 마지막으로 합류했다.

대표팀 사령탑인 김경문 감독은 12일 일본 오키나와 온나손 아카마구장에서 첫 훈련에 앞서 상비군에 소속인 장원삼과 민병헌을 대표팀 후보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민병헌이 합류하면서 '국제용 선수'인 베테랑 외야수 박재홍(34·SK)은 중도하차해 대표팀은 총 31명으로 꾸러지게 됐다.

5차 엔트리 33명에 들었던 이승엽(31·요

박찬호 연봉 50만달러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 복귀한 박찬호가 기본 연봉 50만달러에 빅리그 보장이 없는 노랜티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턴 지역 '보스턴 헤럴드'는 12일 인터넷에서 박찬호가 다저스에 복귀한 사실을 전한 뒤 연봉은 50만달러라고 밝혔다.

박찬호가 "신인과 비슷한 계약을 했다"고 말한 것에 비춰볼 때 이는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 39만달러보다는 많고 지난해 뉴욕 메츠와 계약하며 받은 60만 달러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박진표기자 lucky@

이영표 4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이영표(30·토트넘)가 감독 교체 이후 네 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면서 변함없는 활약을 펼쳤다.

이영표는 1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화이트하트레인 경기장에서 펼쳐진 2007~2008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위건 에슬레틱과 홈 경기에서 주 포지션인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해 팀의 4-0 대승에 힘을 보탰다.

한편 약재에 시달리고 있는 이동국(28·미들즈브러)은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해 주전 경쟁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SK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 준우승

SK 와이번스가 일본 캄피온 주니치 드래곤스와 치열한 접전 끝에 어렵게 우승컵을 놓쳤다.

SK는 지난 11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 2007' 주니치와의 결승에서 6명의 투수를 기용하며 총력전을 펼쳤으나 5-5로 팽팽히 맞선 9회초 이바타 히로카즈에게 결승타를 허용해 5-6으로 패했다.

SK는 코나미컵 예선 3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1위로 결승에 올랐지만 마지막 판문을 넘지 못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해남서 20일 축구 상비군 선발

해남군은 "2008년 한국 고교축구연맹 상비군 선발 및 해외 파견선수 선발전이 오는 20일 일요일 해남에서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축구 명문 학교가 총 출동하는 이번 대회에는 모두 63개 팀 2천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11일간 열전을 치른다.

이번 대회는 지난 해 '추계 전국대학 대회', '2007년 한국 고등연맹 상비군 선발전', '한국 고등연맹 추계 축구대회'에 이어 4번째로 해남에서 열리는 전국 규모의 축구 대회다.



13일(화) ▲NFL <샌프란시스코 : 시애틀>(10 : 30·SBS스포츠) ▲서울시 추계 고교야구 결승전(13 :

00·MBCESP) ▲아시아&오세아니아 장애인 탁구선수권(14 : 50·KBS2) ▲프로농구 <KT&G : KTF>(18 : 50·SBS스포츠·Xsports) 14일(수) ▲FINA 월드컵 수영 스웨덴대회(02 : 30·MBCESP)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Blessing' (작은만남 큰 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cludes categories like '개업·성업 안내', '코사마트', '봉선2동풍물교실', '하동개인택시매매상사', '경락교정원', '청산리면옥', '에온스가구', '아주커치킨(주월점)', '비바생삼겹', '동의보감', '송정금호식육식당(운남점)', '신광당안경원', '다운상사', '한일농장', '양자강', '광주릉담', '상무보양탕', '인성상사', '화룻불이야기', 'e-뿌지오봉선점', '행림당한약방', '왕자관', '향미집', '광주실내수영장', 'HERBALIFE(허벌라이프)', '일승정', '비야꽃게장·꽃게탕전문점', '옛날손짜장', '빛나리순대국', '대성떡방앗간', '진가네', '우리문화연구회소리노리', '창평국밥', '유성조정자지·침묵백화점', '실로암온천', '낙지소등', '오리명가토기장이'.